



진심 어린 공감과 따스한 위로를 담은 그림으로 마음을 울리다 ‘그리매 공방’ 김명숙 작가

파도가 일렁이는 푸른 바다와 풍경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뒷모습.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국내 작가의 그림이 호주 시드니 한 건물의 전광판에 걸려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침표>라는 제목의 그림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했다. 낯선 타국에 전시된 그림으로 마음을 울린 이는 작품활동을 한 지 올해로 16년이 된 김명숙 작가다. 20년 전 고양시에 정착해 조그만 공방을 운영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녀를 만나보았다.

글. 김수은 사진. 김성재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호주 시드니는 매년 찬란한 조명 설치물과 영사기에서 비추는 다채로운 영상으로 축제를 하는 화려한 도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거의 모든 축제가 취소됐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많은 전시가 취소되었지만, 김명숙 작가는 그림을 처음 가르쳐준 스승의 권유로 호주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국내 작가 3명과 호주 작가 10명이 참여한 전시에서 김명숙 작가의 작품은 대표작으로 선정돼 큰 호평을 받았다. <침표>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뉴 사우스 웨일즈 채스우드에서 위치한 갤러리 ‘Art Space on The Concourse’에 찾아온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거리 한가운데 솟은 건물 전광판에 걸려 코로나19로 암울한 도시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호주에서 개최된 전시에서 세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중에서 딸을 모델로 그린 작품이 대표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요.



호주 전시회에서 대표작으로 선정된 <침표>

호주 시민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제를 모은 <침표>라는 작품은 딸이 대학 시절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다. 고장 난 스쿠터를 끌고 다니며 지친 몸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하는 모습을 담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훌쩍벗어날 수 있는 작품 속 주인공의 모습이 암담한 코로나19 시대를 견디는 사람들의 모습과 중첩되며 공감과 위로를 전해준 것이다.

숨겨진 재능에 날개를 달아준 그림

호주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준 이는 김명숙 작가가 그림을 시작할 때 처음 만난 스승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녀의 숨은 재능을 발견해 미술대회 출전을 권유하고 미술실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준 선생님이 있었지만,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미술을 전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41세에 만난 스승의 도움으로 화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항상 마음속에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있었어요. 지금은 호주로 이민을 가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 김점만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셨죠. 동생의 권유로 포천시 문화제에서 특선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처음엔 시큰둥했던 남편도 특선 이후 그린 작품을 보더니,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틈틈이 그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홍익대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수업을 들으며 그림 실력을 키웠다. 비전공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10년 가까이 전시와 공모전 수상 실적을 쌓았고 2015년에는 한국미술협회와 고양미술협회의 회원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초코아트(오일 파스텔)와 도자기핸드페인팅, 냅킨아트 등 다양한 공예 자격증을 따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5년 전에는 그림과 공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에 작은 공방도 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으로 사랑을 나누다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사람들, 미루나무와 정자가 있는 연못과 산책로, 비 내리는 역에서 우산을 쓴 채 트렁크에 걸터앉은 여인, 싱그러운 포도 등 그녀가 캔버스에 담은 주제는 다양하면서도 친숙하다. 주로 생활에서 영감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 겹의 덧칠로 독특한 색감과 질감을 만들어내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그녀가 그린 유화 작품은 수채화처럼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강한 터치가 돋보이는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아직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장르와 소재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시도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전시회를 열어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복지관에서 할머니들에게 그림을 가르쳐드리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2006년 첫 전시 이후 15회의 그룹전에 참여해온 김명숙 작가는 올해 6월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그녀의 작품이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